

2019

인문과학대학 우수 논문 공모전

독어독문학과 1824

기억의 사멸성에 저항하는 역사의 증인되기
-루트 클뤼거의 『삶은 계속된다』를 중심으로

기억의 사멸성에 저항하는 역사의 증인되기

- 루트 클뤼거의 『삶은 계속된다』를 중심으로

독어독문학과 1824

I. 서론

다른 기억들과 마찬가지로 쇼아의 기억 또한 직접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과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쇼아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쇼아는 단순 사회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 소멸했던 경험으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은 쇼아 경험자의 뒷 세대들, 그리고 제3자들에게 이어진다. 이들에 의해 쇼아는 기록문학, 영화, 박물관 등으로 변주된다. 이 변주 때문에 현대인들이 던져야 할 문제는, 변주를 통해 생성된 이 ‘홀로코스트 복제품’들이 후대에 ‘홀로코스트’에 가장 가깝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한 쇼아 기억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루트 클뤼거의 『삶은 계속된다』는 감정적인 문체와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역사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증언이 추구하는 사건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쇼아의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단순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논문에서는 루트 클뤼거의 『삶은 계속된다』를 중심으로 이 책에 나타난 작가의 역사 서술 방식을 분석한 것과 역사의 증인에 대해, 또 기억의 사멸성을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 답을 제시할 것이다. 또 루트 클뤼거의 역사관과 쇼아 기억 태도에 대해 프리모 레비와의 비교도 이루어질 것이다.

II. 쇼아의 증인

가.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

-증언을 통한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의 공명

쇼아 기억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 이래, 증언이라는 말이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증언 문학이라는 장르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아우슈비츠와 생존자들의 증언이 드러내는 윤리에 대해 저술한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증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라틴어에는 ‘증인’에 해당하는 말이 두 개 있다. 첫 번째 말은 ‘testis’인데, 영어의 ‘testimony’는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다. 어원상 이 말은 서로 경합하는 두 당사자들 간의 재판이나 소송에서 제삼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두 번째 말은 ‘superstes’인데 어떤 일을 끝까지 겪어낸 사람, 어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했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감벤, 22)¹⁾

1)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역, 새물결, 2012, p.22

여기서 레비(Primo Levi)나 클뤼거(Ruth Klüger)가 필연적으로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 두 사람은 모두 수용소 경험이 있으며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홀로코스트 기억의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고, 동시에 사건을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사건에 대해 진솔하게 보고할 것에 대한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

반대로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쇼아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쇼아의 기억을 배움으로서 반성을 지속해야 하는 후세의 사람들이다. 후세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쇼아의 기억을 이어받아 이 사건이 함의하는 인간성과 윤리의 심각한 결여를 이해하고 후세에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또한 후세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쇼아 기억의 법정에서 배심원의 역할로 참여해야 하는 범인류적인 의무를 인지하는 것이다. 쇼아에 대한 증언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각 세대가 증언을 통해 쇼아를 마주하게 될 때 마다 심판은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상호보완적인 쇼아의 증언

-목적으로서의 증언과 고백으로서의 증언

이렇게 쇼아를 재판하는 공간을 여는 데 가장 크게 일조하는 것은 증언 문학이다. 증인으로 서 쇼아를 심판하는 재판장에 참여한 개인의 증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지 파악하기 위해선 후세에 기억을 전달해주기 위해 어떤 증언이 어떤 형식을 띠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증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증언은 사건을 경험하는 수동적인 태도와 사건을 해석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결합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피터스(John D. Peters)에 따르면, 증언에는 사건을 ‘바라보기로서의 증언’과 ‘말하기로서의 증언’, 혹은 ‘목적으로서의 증언’과 ‘고백으로서의 증언’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결합되어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증언이라는 것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집합적 기억’의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적 특성의 측면을 포착할 수 있다.”(Agamben, 168-169)²⁾

목적으로서의 증언은 날 것 그대로의 사실, 즉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쇼아에 대한 정보나 베를린에 있는 테러의 지형 박물관(Topographie des Terrors)에 전시된 자료들 등으로 예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소화되지 않은, 즉 해석을 결여한 증언으로 쇼아와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없어 공감대를 형성하기 점점 어려워질 후대들이 이런 목적으로서의 증언만 접할 경우 쇼아가 인류에게 남긴 상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 이는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바와 같이, 홀로코스트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그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고 할 만한 것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위의 의미와 이유”조차도 “난해한 수수께끼”로 남아버릴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³⁾ 즉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과거에 일어나긴 했지만

2)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이미지 연구소 편, 박진우, 「기억과 증언, 그리고 저널리즘의 역할」, 『민주주의 증언 문학』, 도서출판 엘피, 2018, p. 168-169.

3)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이미지 연구소 편, 임경규, 「무젤만과 증언의 윤리」, 『민주주의 증언 문

그것의 윤리적인 문제나 반성의 의무가 후세에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고백으로서의 증언은 사건에 대한 증인의 경험에 증인의 해석이 덧붙여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을 경험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점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다.

증언 문학을 저술함으로서 고백으로서의 증언을 세상에 내 놓은 레비와 클뤼거의 사례를 살펴보자. 두 사람의 서술 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레비의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와 클뤼거의 『삶은 계속된다』가 둘 다 쇼아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지만 두 저자가 쇼아를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고 쇼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전혀 달랐으며 하고 싶은 이야기 자체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프리모 레비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루트 클뤼거 『삶은 계속된다』
나는 역사가의 작업, 즉 근원을 철저히 파헤치는 작업을 할 의도는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다. 다만 거의 전적으로 나치들의 라거들을 다루는 데 국한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해서만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S.21)	유령들과 교류하려면 현재의 미끼를 던져야 한다. 조용히 휴식하고 있는 유령들을 끌어내 움직이게 하려면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야 한다.(S. 101) 공감하고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S. 1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대척점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책의 기능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더 분명해진다. 프리모 레비는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의 전신이자 그의 경험에 가장 가까운 묘사인 『이것이 인간인가』에서 “그때의 기억이 뜨겁게 타올랐다”고 묘사하고 있다.⁴⁾ 그래서 그는 간간히 어떤 일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을 제외하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묘사하는 데에 충실하고 있고, 후에 독자의 질문에 답을 주고는 있지만 최종적인 답은 독자가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루트 클뤼거의 『삶은 계속된다』는 수치화된 자료와 객관적인 자료에서 느낄 수 없는 생생한 감정과 쇼아 기억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이 작품은 단순 과거에 대한 묘사보다는 클뤼거 자신이 직접 관찰한 시대의 모습을 집필하고 있는 시점에서 회상하면서 다양한 삶의 양상을 재발견하고 현재 사회가 쇼아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들이 홀로코스트 문학 장르에서 흔히 기대하는 수용소 이전, 수용소 당시, 수용소 이후라는 세 가지 단계만이 아니라 글을 저술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까지 다루고 있다. 특이점이라고 할 것은, 작품 전체에서 꾸준히 보이는 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성차별 경험 등은 스피박의 연구처럼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해석할 가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인물에 대한 서술과 평가를 통해 상황에 대한 클뤼거의 분석과 비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 방식은 상이하지만 이 둘 모두 쇼아 이후에도 파시즘과 네오나치 문제 등 쇼아 당시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알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학』, 도서출판 엘피, 2018, p. 217.

4) 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이현경 역, 돌베개, 2007, p. 266.

된다고 생각했다. 이는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 이후에는 더 이상 서정시를 쓸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쇼아의 경험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⁵⁾

Ⅲ. 쇼아 기억의 사멸에 저항하기

가. 기억학적 관점에서의 약점

사람들은 다양한 시선과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쇼아 기억, 또는 홀로코스트를 배경으로 한 창작물에 접근한다. 쇼아의 기억은 과거로 깔끔하게 잘려서 그대로 박제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일종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홀로코스트를 다룬 허구적인 텍스트나 영화, 창작물 등을 접하면서 좀 더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기록이 보장하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라면 클뤼거의 『삶은 계속된다』를 읽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런 사람들이 한 개인의 삶의 묘사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찾을 때 할 수도 있는 걱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의 공간에 나오는 이런 교과서적인 멘트이다. 이는 기억의 왜곡, 편집, 쇠퇴가 쉽게 일어남을 설명한다.

“회상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며, 그것은 항상 현재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회상할 시점에서 기억된 것이 치환, 변형, 왜곡, 가치 전도 내지는 복구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잠복 기간 중에 기억은 확실한 저장소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변화 과정에서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Assmann, 2011)⁶⁾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클뤼거의 추측성 발언은 단정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독자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특히 어머니의 발언이나 행동의 이유에 대한 추측은 작품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 또, 박물관 문화에 대한 회의나 쇼아에 대한 제3자의 왜곡된 인식 등의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 등을 보면 이런 점이 이 책의 기억학적인 단점이라고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

나. 개인의 기록, 기록문학으로서의 강점

하지만 이 책이 기록문학으로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 분명 있다. 개인, 또는 단일한 화자가 쇼아와 같은 집단 학살의 기억을 관찰하는 시선을 채택하는 소설과 같은 허구적 텍스트, 수필 등이 보장하는 것은, 공적 기억을 통해 실제 사건의 참혹함이나 피해자의 고통이 왜곡되고 비가시화될 확률이 현저히 적어진다는 것이다. 화자의 개인적인 경험의 묘사를 통해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작품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 책의 서술은 쇼아를 단순히 역사의 회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인 기억 방식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화자의 정체성과 시각, 그리고 타자의 시각에서 본 쇼아에 대한 인식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이를 현재와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책의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유대인 여성의 유년기부터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의 이야기까지 변해가는 정체성을 보여주며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5) 이 문단에서 언급한 아도르노의 말에 대한 내용은 2019년 11월 15일에 이화여대에서 열린 독어독문학과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뒤에 교수님들께서 주신 피드백을 참고한 것이다.

6)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 채연숙 역, 그린비, 2011, p.39.

이미지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것이다. 다음 표는 책의 중심내용을 목차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주요 내용	
1부: 빈 빈에서의 유년기	어린 유대인 여성이 동족 내에서 겪는 성적 불평등 '루트'라는 이름을 통해 자의적으로 정체성 세우기	어머니와의 갈등 여성이라는 존재 때문에 일어나 는 문제 인물에 대한 평가, 서술
2부: 수용소 (테레지엔슈타트, 아우슈비츠 비르케 나우, 크리스타인슈 타트)	수용소 기억 유대인들 사이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당한 일종의 차별 시오니즘 여성 유대인들의 다양한 모습	
3부: 독일 (탈출, 바이에른)	탈출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자에 대한 독일의 태도	
4부: 뉴욕	대학생활 이방인 쇼아에 대한 인식, 왜곡, 오해 아버지와 소르지의 죽음에 대해	
에필로그: 괴팅겐	끝나지 않는 불안 삶에 대한 의지	

일단 이 작품은 유대인인 작가가 '말할 수 없는 무능함'을 돌려 말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증명한다. 말할 수 없는 무능함이란 유대인이나 여성 등 클뤼거가 태어나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요인 때문에 권력 계층에서 하위에 배치되거나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을 권리를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작중에 클뤼거가 직접 쓴 시가 나오는데, 이 시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문학적으로 비판하고, 쇼아의 유령이 된 아버지를 추모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한다. 이는 소설 등 허구적 텍스트에서 제공하는 추상적, 의미적인 추모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시에 등장하는 상징이 그녀의 인생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을 통해 반복되는 감정의 양상도 관찰할 수 있다.

또 감정적인 서술과 화자의 개인적인 생각임이 분명한 말들은 내용의 신뢰도를 의심하게 하여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홀로코스트 문학이라는 장르가 주는 사실성의 담보와 실제의 괴리를 보며 독자들이 나름 능동적인 독서를 하도록 만든다. 수용소의 경험에 한정되지 않고 그 경험으로부터 과거의 시점에서 이어지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문제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클뤼거와 연결하는 감정선을 이끌어낸다. 또 여성이기 때문에 겪은 성차별 등은 이 작품을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제공한다.

따라서 기억의 공간에 나오는 또 다른 말에 언급된 '상기적 특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작가는 지나간 것을 지나간 것으로 두지 않고 끊임없이 곱씹으며 그것을 희미해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와 닿는 무언가, 가까운 무언가로 만들어 기억을 지속했던 것이다.

"의식은 일반적으로 '지나간 것이라는 상황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런 논법은 기억이 가지는 상기적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환언하면, 기억이란 그것이 관련하고 있는 경험이 완결되어 과거지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생긴다는 말이다. (Assmann, 2011)⁷⁾

7)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 채연숙 역, 그린비, 2011, p. 9.

이러한 특징들을 지닌 그녀의 서술은 “사건의 의미를 포착하는 문학적 재현의 양식으로 한정되지 않는 좀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전달의 가능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무한한 체험과 표현의 가능성을 함께 내포한 영역이다.”⁸⁾

클뤼거의 『삶은 계속된다』는 수필이지만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이들의 눈을 통해 바라본 쇼아,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쇼아 기억의 현재와 가지는 연결성을 보여주고 자신의 삶의 의지를 보여준 클뤼거의 기억이 유기체적인 기억이라는 것을, 그리고 클뤼거 자신이 열정적인 쇼아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시간은 흐르고 쇼아의 기억도 희미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쇼아의 기억이 사멸되는 것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세계에 잔존하는 네오나치와 극우주의자들에 대항하기 위해 쇼아의 유령과 교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쇼아 기억에 대한 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공간은 문학, 예술, 박물관 등에 다양하게 열려 있다. 쇼아 기억의 존속에 대한 문제는 이 공간을 연 자와 공간에 들어오는 주체들, 즉 홀로코스트 문학을 읽는 독자와 홀로코스트 영화를 보는 관객들, 그리고 홀로코스트 및 수용소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것이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결국 쇼아의 기억이 사멸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이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쇼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열린 담화의 장에서 공간을 연 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2019년, 아우슈비츠 여성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던 홀로코스트 생존자 에스터 베하나로는 “세상에서 나치가 더 이상 없어질 때까지 계속 노래하겠다”고 말한다.⁹⁾ 그의 말대로 정말 세 상에서 나치가 없어지기 위해선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을 것이다.

8)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이미지 연구소 편, 박진우, 「기억과 증언, 그리고 저널리즘의 역할」, 『민주주의 증언 문학』, 도서출판 엘피, 2018, p. 169.

9) Esther Béjarano, “Ich werde so lange singen, bis es keine Nazis mehr auf der ganzen Welt gibt.”

<참고문헌>

단행본

- 루트 클뤼거, 『삶은 계속된다』, 최성만 역, 문학동네, 2018.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 채연숙 역, 그린비, 2011.
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이현경 역, 돌베개, 2007.
프리모 레비,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소영 역, 돌베개, 2014.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역, 새물결, 2012.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이미지 연구소 편, 『민주주의 증언 문학』, 도서출판 엘피, 2018.

논문

- 이명호. (2005). 역사적 외상의 재현 (불가능성) : 홀로코스트 담론에 대한 비판적 읽기.
비평과 이론, 10(1): 125-153.
장희권. (2003). 역사기술의 허구적 성격 -혹은 역사기술에 대한 문학의 경쟁력-. 독일어문학,
22(0), 201-226.
홍국평. (2012). 책임 있는 해석학을 위한 제언. 캐논엔컬처, 6(2), 109-135.
연남경. (2011). 집단학살의 기억과 서사적 대응. 현대소설연구, (46), 281-307.